

학교운동부·갑질·인사 분야 집중 개선

전북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회의 열고 하반기 대응 전략 논의... 3대 부패취약분야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와 조직문화(갑질), 인사 분야를 3대 부패취약분야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개선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22일 본청 5층 회의실에서 제2차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합령도 평가 1등급 달성을 위한 상반기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본청 국·과장과 감사관, 직속기관장, 교육장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청렴정책 총괄기구로, 전북교육청의 청렴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추진 중인 과제 모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예정 과제를 포함한 전체 평균 이행률은 54%로 집계돼 청렴정책이 안정적인 추진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지속 가능한 반부패·청렴 추진 기반 강화 △부패취약분야 제도·시스템 혁신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청렴도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등 4대 전략 아래 14개 분야 3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렴도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학교운동부, 갑질 문화, 인사 시스템을 3대 부패취약분야로 지정하고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학교운동부 분야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불법 찬조금 수수와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역지사지·거꾸로 멘토링' 제도와 '갑질노트' 운영을 통해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 분야에서는 직무 중심의 전보 점수제를 고도화하고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연고주의와 특혜 인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이 교직원과 학부모, 계약 상대방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간부 공무원들이 먼저 기풍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하는 하향식 쇄신을 통해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근절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종합합령도 1등급 전북교육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고교학점제 찾아가는 중학교 설명회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중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6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2026 고교학점제 이해를 위한 찾아가는 중학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안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교육지원청이 학교별 수요와 일정을 직접 조율하고 강사 수당과 홍보자료를 전액 지원하는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설명회에는 전주지역 중학교 35개교가 참여를 신청했으며, 학교별 희망 일정과 대상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총 39개 강좌가 편성됐다.

강의는 학교 강당과 시청각실에서 회당 2시간 내외로 진행되며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운영 방향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체계 △학점 이수 방법 △진로·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방법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고 진로 설계와 학업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선영 전주교육장은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가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진로·진학 지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지난 20일 전북에서 대전·세종·충남·전북·전남·경남 등 6개 시·도 교총이 참가한 가운데 2026 중남부권 교총회장기 배구대회가 열렸다.

교원들, 전북서 배구로 화합 | 중남부권 교총회장기 배구대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2026 중남부권 교총회장기 배구대회가 전북에서 성황리에 열리며 교원 간 화합과 교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전북교총은 지난 20일 전북에서 대전·세종·충남·전북·전남·경남 등 6개 시·도 교총이 참가한 가운데 2026 중남부권 교총회장기 배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도 교총 간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원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소통과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해 세종에서 열린 데 이어 올해는 전북이 개최지를 맡아 각 지역 교총

선수단과 임원진을 맞이했다.

참가자들은 승패를 넘어 교직 공동체의 의의와 지역 교총 간 결속을 다지는 데 의미를 두고 경기에 임했다. 경기 결과 전남교총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세종교총이 준우승을 기록했다.

각 시·도 교총 선수단은 대회 기간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교육 현장의 경합과 교풍을 공유하는 등 중남부권 교총 간 협력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개최지에 앞서 6개 시·도 교총과 아스포츠는 미래 체육교육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체육교육 발전과 교원 체육활동 활성화, 미래형 체육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에 따라 각 기관은 교원 체육활동 지원, 체육교육 관련 정보 교류, 미래 체육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확산, 학생과 교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행사 협력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체육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중남부권 시·도 교총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교원 보호와 교원 복지 향상, 교육정책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대응과 상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발령 전 학교현장 미리 경험

전북교육청, 신규 교무실무사 '온보딩 프로그램' 도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규 교무실무사의 학교 현장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교무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다.

전북교육청은 신규 교무실무사가 정식 발령 전 배치 예정 학교를 방문해 업무와 근무 환경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보딩 프로그램은 신규 교무실무사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 학교 조직과 업무를 이해하고,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 교무실무사가 실제 근무 예정 학교를 방문해 사전에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학교 현장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신규 채용된 교무실무사 1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오는 7월 1일자로 배치되는 7명이 우선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발령 전 1~2일 동안 배치 예정 학교에서 사전 근무를 실시하며 교직원 소개와 근무 환경 안내, 복무 규정 교육, 전임자와의 업무 인계인수, 현장 중심 질의응답 등의 과정을 거친다.

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교무실무사의 초기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이후 만족도 조사와 학교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원 내용과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최은이 전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온보딩 프로그램은 신규 교무실무사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업무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 덕과초, 전북 5호 IB 월드스쿨 승인

인근 용복중과 연계 통해 지역 중심 IB 교육 생태계 구축 '탄력'

남원 덕과초등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승인을 획득하며 전북지역 다섯 번째 IB 월드스쿨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인근 용복중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중심의 IB 교육 생태계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남원시 덕과초등학교가 최근 국제바칼로레아 본부(IBO)로부터 초등교육과정인 IB PYP(Primary Years Programme) 월드스쿨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IB PYP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와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된 국제 교육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탐구 중심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덕과초는 그동안 IB 후보학교로 운영되며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이어왔다. 교사들은 전문적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수업을 공동 설계하고 연구하며 탐구 중심 수업과 평가 체계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연계된 주제를 탐구하고 실생활 속에서 배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



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학생 중심의 참여형 교실 문화를 구축하며 IB 교육 철학을 학교 현장에 구현해 왔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덕과초는 최근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은 남원의 용복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IB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탐구 중심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승인은 전북 IB 교육의 저변 확대는 물론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에서도 세계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전북교육청은 덕과초 사례가 작은학교의 강점을 살린 수업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